

P1: User Research & Persona

석민창 김해수 박혜정 김혜인

Team 수고하셨습니다

Project title

집사랑

집사 + 사랑 ← → 집사랑



Project tagline

유기동물 입양 관련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 채널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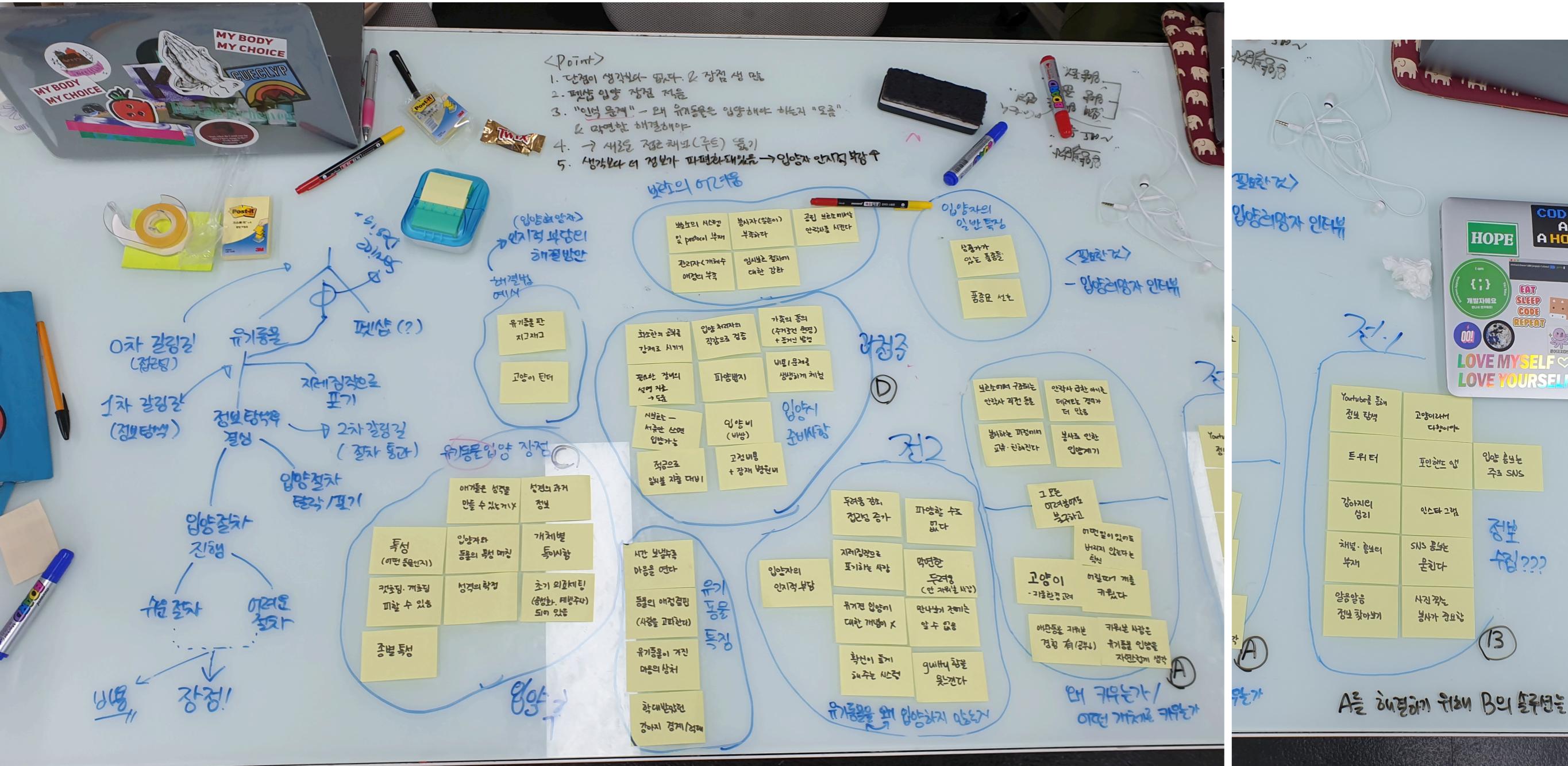
인터뷰 진행상황

-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황과 실제 입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양자 4명** (2명은 직접 인터뷰, 2명은 서면 think aloud 방식 이용),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자 3명 인터뷰 실시

- 개별 인터뷰는 약 20분~40분가량 소요
- 진행한 인터뷰 중 본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유사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 할 점이 있는 **인터뷰이 세 명**을 선정

Affinity Diagram



(입양희망자의)

인지적 부담의 해결방안 예시

유기동물 판
지그재그

고양이
틴더

보호소의 어려움

보호소의 시스템 및 protocol 부재	봉사자(일손) 부족	공립 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시킨다
관리자 < 개체수 애정의 부족	임시 보호 절차에 대한 강화	

입양자의 일반적 특징

상품가가 있는 품종들
품종묘 선호

유기동물 특징

시간 보낼 수록 마음을 연다
동물의 애정결핍 (사랑을 고판다)
유기동물이 가진 마음의 상처
학대 받았던 강아지: 경계/적대

왜 유기동물을 입양하지 않는지?

입양자의 인지적 부담	두려움 감소, 접근성 증가 필요	파양할 수도 없다
확신이 들게 해주는 시스템 필요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사람	막연한 두려움 (안키워본 사람)
guilty함을 못느낀다	유기견 입양에 대한 개념이 없음	만나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음

정보수집 방법 및 경로

유튜브 통해 정보 탐색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트위터
포인핸드 앱	입양 홍보는 주로 SNS	인스타그램
강아지의 심리	채널, 홍보의 부재	SNS홍보는 묻힌다
알음알음 정보 찾아보기	사진 찍는 봉사 중요함	

왜 키우는가 /어떤 개체를 키우는가

봉사하는 과정에서 교류, 친해진다	보호소에서 구조되는 안락사 직전 동물
봉사로 인한 입양 계기	안락사 금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더 많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고양이 (키울 환경 고려)	어릴 때 개를 키웠음
애완동물 키워본 경험 있음 (공부 줄어듦)	키워본 사람은 유기동물 입양을 자연스럽게 생각

유기동물 입양의 장점

(펫샵의) 애기들은 성격을 만들 수 있는 게 x	성견의 과거 정보	종별 특성
특성 (어떤 동물인지)	입양자와 동물의 특성 매칭	개체별 특이사항
캣초딩, 개초딩 피할 수 있음	성격의 확정	초기 의료세팅(증상화, 예방주사 되어 있음)

입양 시 준비사항

최소한의 공부를 강제로 시키기	입양 처리자의 직감으로 검증	가족의 동의 (주거 조건 변경) + 동거인 발생
필요한 장비의 설명 자료 --> 도움	파양 방지	비용 / 문제를 생생하게 체험
시보호소 - 서류만 쓰면 입양 가능	입양비 (비쌈)	적금으로 일시불 지출 대비
고정비용 + 잠재 병원비		

(입양희망자의)

인지적 부담의 해결방안 예시

유기동물 판 지그재그
고양이 틴더

보호소의 어려움

보호소의 시스템 및 protocol 부족	봉사자(일손) 부족	공립 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시킨다
관리자 < 개체수 애정의 부족	임시 보호 절차에 대한 강화	

입양자의 일반적 특징

상품가가 있는 품종들
품종묘 선호

유기동물 특징

시간 보낼 수록 마음을 연다
동물의 애정결핍 (사랑을 고파한다)
유기동물이 가진 마음의 상처
학대 받았던 강아지: 경계/적대

왜 유기동물을 입양하지 않는지?

입양자의 인지적 부담	두려움 감소, 접근성 증가 필요	파양할 수도 없다
확신이 들게 해주는 시스템 필요	지레짐작으로 판단하는 경향	막연한 두려움 (안카워본 사람)
guilty함을 못느낀다	유기견 입양에 대한 개념이 없음	만나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음

입양 전 단계 - 결정

유튜브 통해 정보 탐색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트위터
포인한 정보 SNS	인스타그램	
강아지의 심리	채널, 홍보의 부재	SNS홍보는 묻힌다
알음알음 정보 찾아보기	사진 찍는 봉사 중요함	

왜 키우는가 /어떤 개체를 키우는가

봉사하는 과정에서 교류, 친해진다	보호소에서 구조되는 안락사 직전 동물
봉사로 인한 입양 계기	안락사 급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더 많음

키우는/입양하는 이유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고양이 (키울 환경 고려)	어릴 때 개를 키웠음
애완동물 키워본 경 험 있음 (공부 줄어듦)	키워본 사람은 유기동물 입양을 자연스럽게 생각

정보수집 방법 및 경로

유기동물 입양의 장점

(펫샵의) 애기들은 성격을 만들 수 있는 게 X	성격의 과거 정부	종별 특성
특성 (어떤 동물인지)	여기저기 여러곳에서 보내는 경우	개체별 특이사항
캣초딩, 개초딩 피할 수 있음	성격의 확정	초기 의료세팅(증상 화, 예방주사 되어 있음)

입양 시 준비사항

최소한의 공부를 강제로 시키기	입양 처리자의 직감으로 검증	가족의 동의 (주거 조건 변경) + 동거인 발생
필요한 장비/시설 자료 --> 소중	비용 / 문제를 방지 생생하게 체험	
시보호소 - 서류만 쓰면 입양 가능	입양비 (비쌈)	적금으로 일시불 지출 대비
고정비용 + 잠재 병원비		

입양 후 단계 - 장점

문제점

유기동물 입양 관련 정보 수집 경로가 파편화되어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해야 하는 필요성/인식이 부족하다



Solution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 얻는 장점을 강조한다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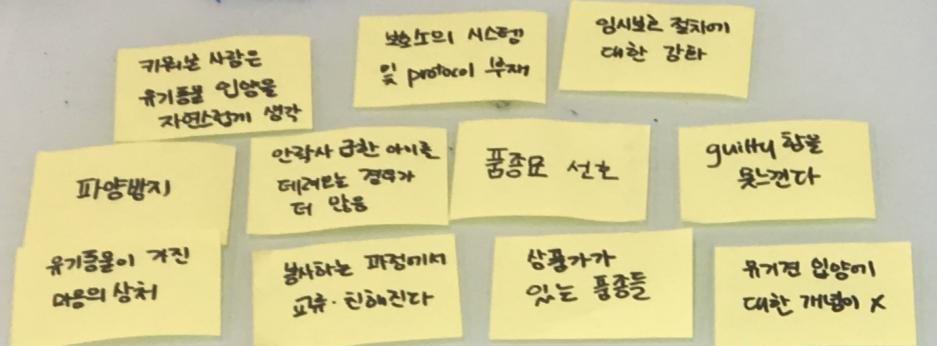
입양 홍보 및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Empath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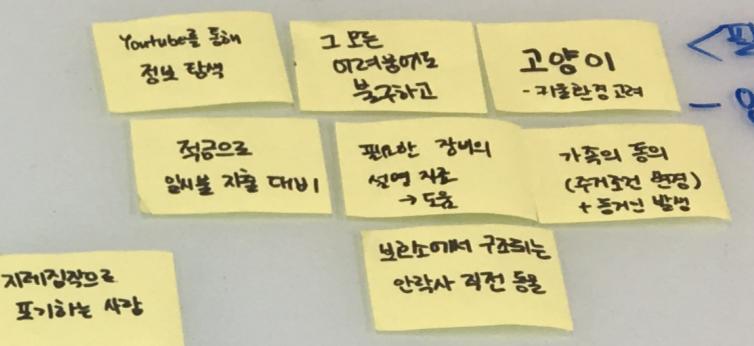
3. "인식 문제" - 왜 유가들은 입장해야 하는지 "모름"
↳ 막연한 해결해야
4. → 새로운 접근 채널(주제) 찾기
5. 생각보다 더 정보가 파편화되었음 → 입장자 인지적 부담 ↑

느낌 (?)

think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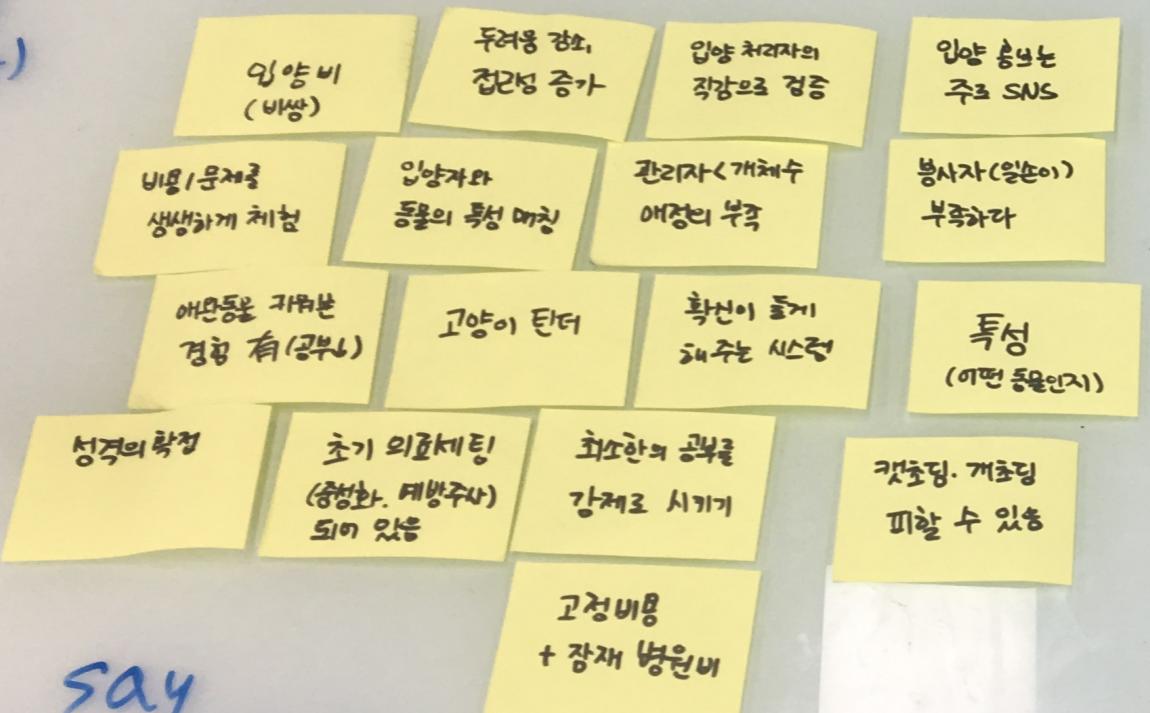


<필요한 것>

- 입장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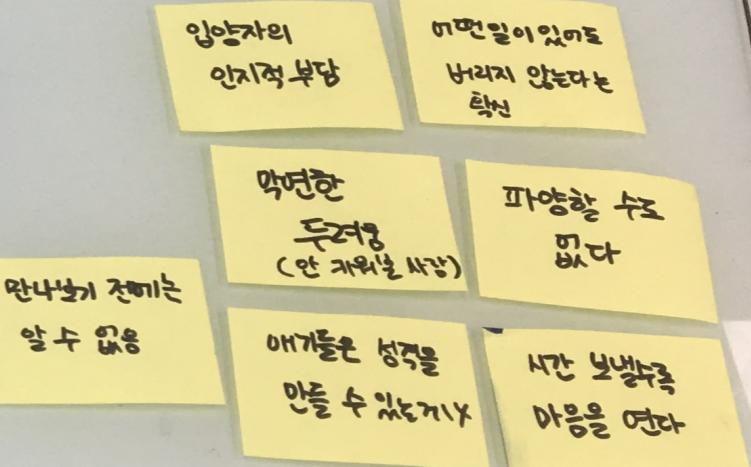
느낌

+ 갈등점
차 통과)



Say
(from interview)

안쓰러움.
동정심



feel

유기동물 판
지그재그

학대받았던
강아지 경계
개자
동물의
(사랑을)

Think

키워본 사람은 유기동물 입양을 자연스럽게 생각	임시보호 절차에 대한 강화	파양 방지	유기견 입양에 대한 개념이 없다
---------------------------	----------------	-------	-------------------

Do

유튜브를 통해 정보 탐색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양이(키울 환경 고려)
적금으로 일시불 지출 대비	필요한 장비의 설명 자료 --> 도움	가족의 동의(주거 조건 변경) + 동거인 발생

안락사 급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더 많음	품종묘 선호	guilty함을 못느낀다
--------------------------	--------	---------------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사람	보호소에서 구조되는 안락사 직전 동물
----------------	----------------------

성격의 확정	입양비(비쌈)	두려움 감소, 접근성 증가	입양 처리자의 직감으로 검증	고정비용 + 잠재 병원비
--------	---------	----------------	-----------------	---------------

초기 의료세팅 (중성화, 예방주사) 되어 있음	입양 홍보는 주로 SNS	비용, 문제를 생생하게 체험	입양자와 동물의 특성 매칭
---------------------------	---------------	-----------------	----------------

입양자의 인지적 부담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막연한 두려움 (안키워본 사람)
-------------	-----------------------	-------------------

최소한의 공부를 강제로 시키기	관리자 < 개체수 애정의 부족	봉사자(일손이) 부족하다	애완동물 키워본 경험 있음(공부 줄 어들)
------------------	------------------	---------------	-------------------------

파양할 수도 없다	만나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음	애기들은 성격을 만들 수 있는게 x
-----------	-----------------	---------------------

캣초딩, 개초딩 시기 피할 수 있음	고양이 틴더 Say (From interview)	확신이 들게 해주는 시스템	특성 (어떤 동물인지)
---------------------	-----------------------------	----------------	--------------

시간을 보낼 수록 마음을 연다

Feel

Think

키워본 사람은 유기동물 입양을 자연스럽게 생각	임시보호 절차에 대한 강화	파양 방지	유기견 입양에 대한 개념이 없다
---------------------------	----------------	-------	-------------------

Do

유튜브를 통해 정보 탐색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양이(키울 환경 고려)
적금으로 일시불 지출 대비	필요한 장비의 설명 자료 --> 도움	가족의 동의(주거 조건 변경) + 동거인 발생

안락사 급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더 많음	품종묘 선호	guilty함을 못느낀다
--------------------------	--------	---------------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사람	보호소에서 구조되는 안락사 직전 동물
----------------	----------------------

성격의 확정	입양비(비쌈)	두려움 감소, 접근성 증가	입양 처리자의 직감으로 검증	고정비용 + 잠재 병원비
--------	---------	----------------	-----------------	---------------

입양자의 인지적 부담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막연한 두려움 (안키워본 사람)
-------------	-----------------------	-------------------

최소한의 공부를 강제로 시키기	관리자 < 개체수 애정의 부족	봉사자(일손이) 부족하다	애완동물 키워본 경험 있음(공부 줄 어들)
------------------	------------------	---------------	-------------------------

입양자의 인지적 부담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막연한 두려움 (안키워본 사람)
파양할 수도 있는 것들	만나보기 전에는 얘기들은 성격을 알 수 있는게 x	

캣초딩, 개초딩 시기 피할 수 있음	고양이 틴더	확신이 들게 해주는 시스템	특성 (어떤 동물인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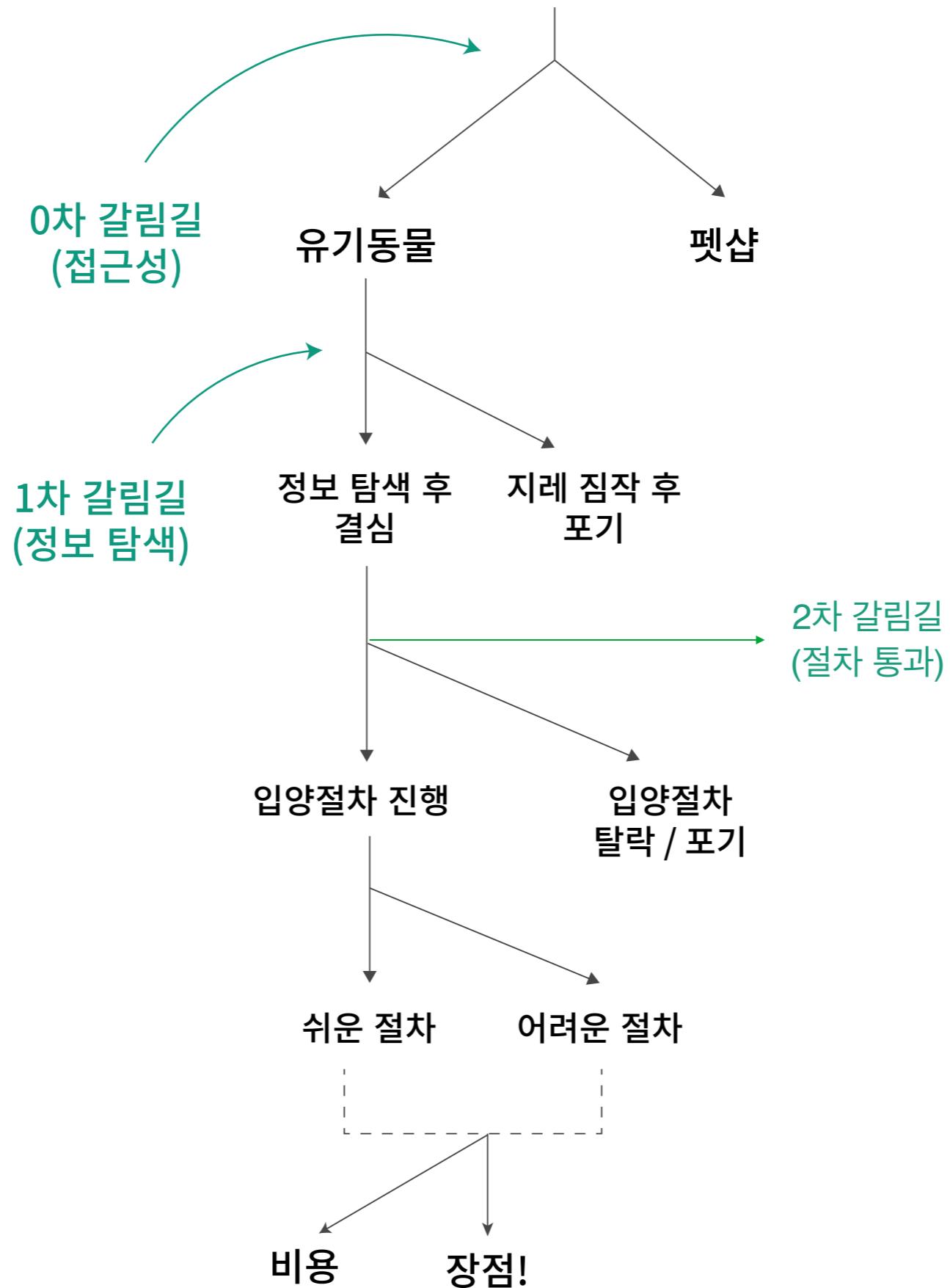
시간을 보낼 수록 마음을 연다		

**Say
(From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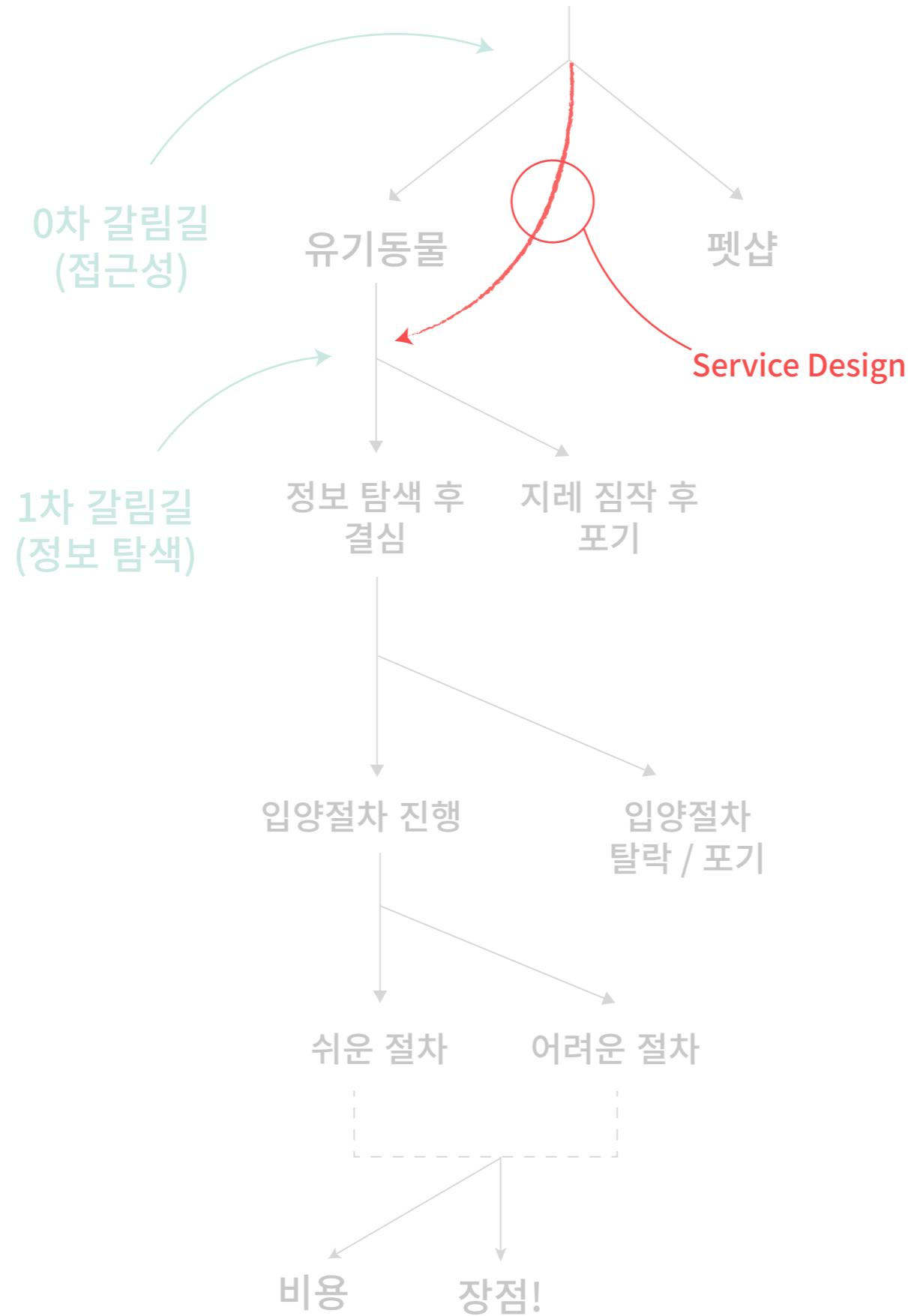
Feel

결과 분석

유저 분석



유저 분석



연구 방향성 수정

기존 DQ

어떻게 하면 유기 동물의 파양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까?



수정 DQ

어떻게 하면 유기동물 입양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

Insights & POV

1. 유기동물 입양의 단점이 생각보다 없다 & 장점이 생각보다 많다
 1. 펫샵 입양의 장점이 적다
2. "인식문제"
 1. 왜 유기동물을 입양해야 하는지 모름
 2. 막연한 불안감을 해결해야 한다
 3. 새로운 접근 채널(루트) 를 뚫을 필요성이 존재
 4. 생각보다 더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음 ---> 입양자의 인지적 부담이 증가

----> 필요한 것: **입양 희망자 인터뷰** (입양을 하지 못한 이유)

Method

Triangulation

1. 인터뷰

유기동물 실제 입양 희망자 (장단점)

보호소 관계자 (입양 프로세스 등)

2. 서베이

일반적으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조사

3. Shadowing

입양센터 봉사 가서 센터의 상황을 관찰하고 조사하기 (혹은 인터뷰로도 해결 가능)

4. Rapid Prototyping (예정)

다양한 해결방법론들이 나왔으니 직접 실험해 보기

Persona



김빛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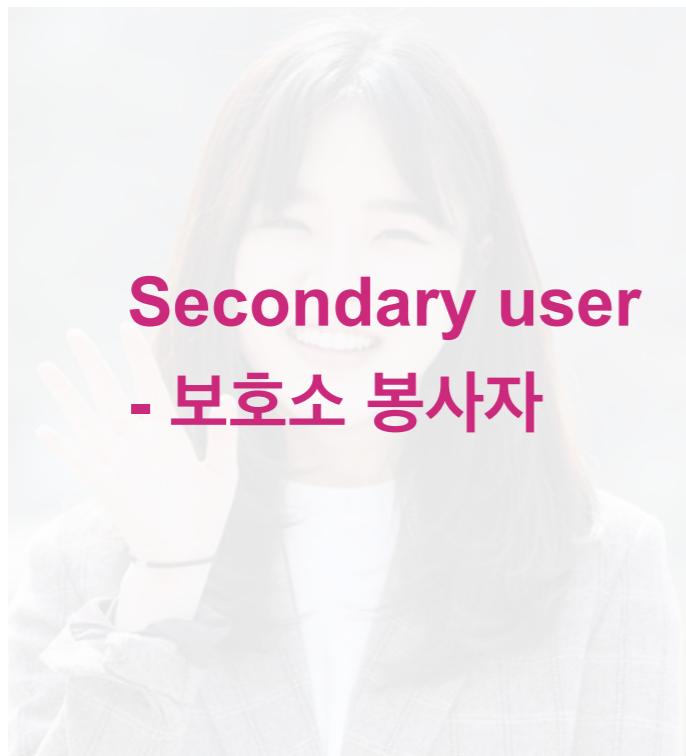
윤인아



박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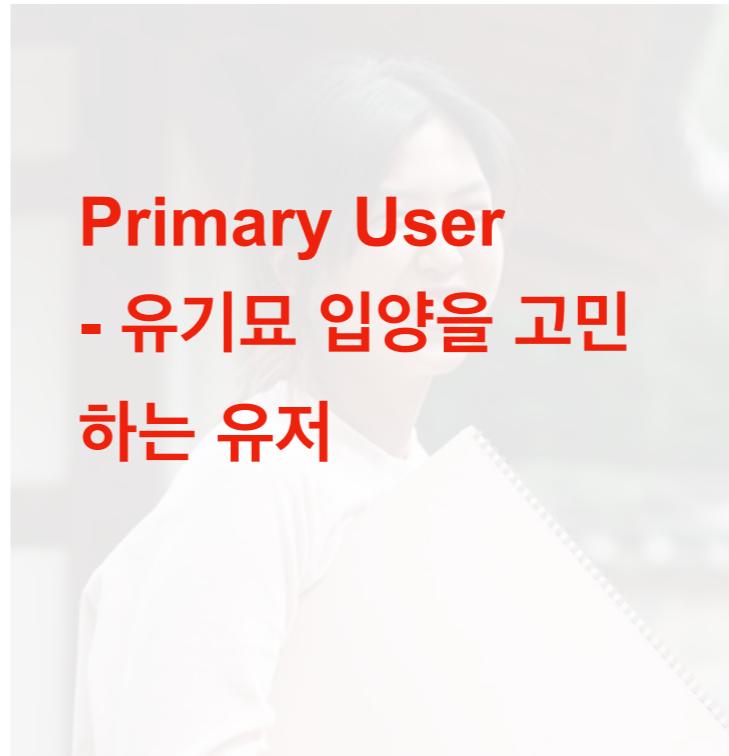


김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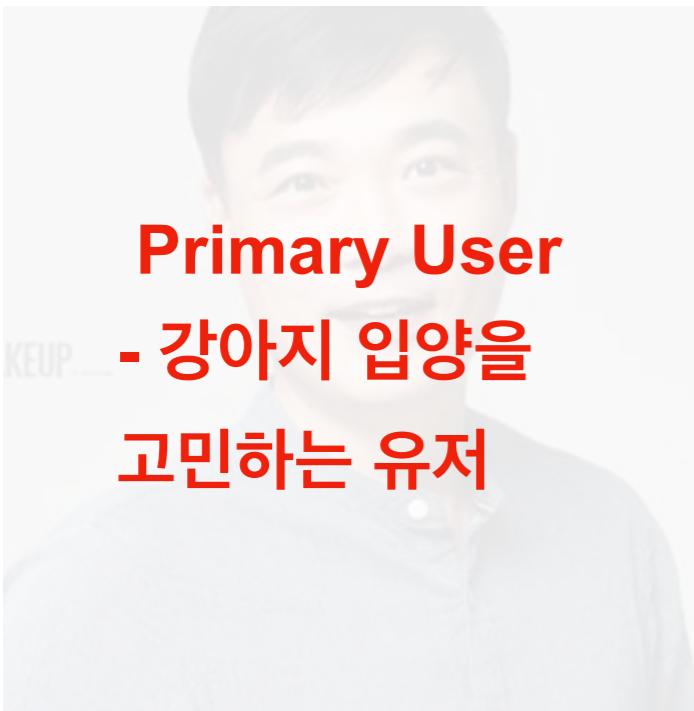


김빛나

Secondary user
- 보호소 봉사자



Primary User
- 유기묘 입양을 고민
하는 유저



박민석

Primary User
- 강아지 입양을
고민하는 유저



김민재

Co-operator
- 사설 보호소 운영자



Group: Primary User - 유기묘 입양을 고민하는 유저

- 이름: 윤인아
- 나이: 29
- 직업: 모바일 UI/UX 디자이너
- 성별/성적지향: 여성, 이성애자



성격

- 내향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함
- 밖에서 나가 노는 것보다 집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
- 정이 많은 편이어서 한 번 정을 불인 대상에게는 끝까지 애정을 준다. 사람과의 연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편
- 마지막으로 연애를 한 것은 8개월 전이지만, 별 감흥 없이 헤어지고 나서 현재는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루 일과

-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장이기 때문에 출근을 할 때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 출근을 하는 날에는 10시경까지 혜화에 있는 공용사무공간에 출근하여 작업을하거나, 회의를 한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갈 생각에 심란해져서 퇴근 시간을 계속 미루다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도 있다.
- 출근을 하지 않는 날에는 늦게 기상하여 집에서 여유롭게 작업을 한다. 효율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근처 카페에서 작업을 하기도 한다. 하루를 늦게 시작하면 새벽까지 정신없이 작업을 할 때도 있다.



Background

- 예전에 집에서 기르던 개가 4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여전히 휴대폰 및 컴퓨터 배경화면은 기르던 개 사진이다.
- 본가는 지방에 있어서 출근을 위해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자취를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다.
- 인디 게임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는 중이다. 디자인 작업이기도 하고, 공용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근할 필요는 없어서 간혹 집에서 작업을 하기도 한다. 다만 집에서 작업할 때는 집중이 되지 않아 출근할 때도 많다.
- IT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만큼 디지털 문화에 많이 익숙한 편이다. 사용하는 앱 등은 다양하지 않지만, 사용에도 능숙하고, 다양한 정보를 많이 들어 알고 있다.



Background

- 일이 힘들어서 최근 퇴사를 고민하는 중이지만, 서울에서 갈 곳이 없다는 불안감, 또 더 좋은 직장을 찾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혼자 서울에 올라와 살고 있어 외로움을 간혹 느낀다. 그러나 집순이적 성격과, 일을 하고 나서 힘든 몸을 이끌고 술자리를 나가는 등의 사회생활을 할 기운은 없어 요즘 외로움이 더더욱 증폭되는 중이다.
- 외로움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을 결심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표어를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유기동물 입양을 찾아보는 중이나 정보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고, 막상 입양을 했을 때 문제는 없을지,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졌다.



Goals

-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아래와 같은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다
 -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다**
 - 연애를 하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지만, 내가 애정을 줄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 유기동물을 입양에 대한 체계적이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싶다
-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얻고 싶다



Group: Primary User - 강아지 입양을 고민하는 유저

- 이름: 박민석
- 나이: 40
- 직업: 사무직 직장인
- 강아지를 키우자고 조르는 자녀(9살)가 있는 아빠 (맞벌이 부부)



성격/가치관

- 아이의 의사 존중, 아이에게 다정한 편
- 하지만 아이라고 항상 봐주는 것은 아니며, 칼 같은 면도 있음.
(ex. 밥 먹기 전 사탕 먼저 먹으면 안됨)
-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냉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친해지고 나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줌.
- 말을 많이 하지 않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리스너 역할.



성격/가치관

- 한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편.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사회인과 아빠의 역할을 둘 다 해야했기 때문에 더 계획적인 사람이 됨.
-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으로 푸는 편. 하지만 요즘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스트레스 해소가 잘 안됨.
- 시간은 금이다!
: 불필요하게 시간을 쓰는 걸 싫어함. 계획에 따라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약간 불안해 하는 경향이 있음.



하루 일과

[평일]

1. 아침 8시 반 아이와 집을 나서서 출근, 아이 학교로 데려다줌
 1. 아이는 2시(?)에 집에 옴 -> 집에서 점심 먹고 학원 or 집에 있음
2. 6시 퇴근- 7시 집 도착

[주말]

1. 아침에 주로 늦잠, 10시 쯤 일어나 아이 밥을 차려 줌
- 아이와 함께 아침 겸 점심을 먹음
2. 12시: 아이와 함께 가까운 공원에 배드민턴을 치러 감
3. 2시: 집에 와서 아이와 간식을 먹음
4. ~6시: 자유시간
5. 6시: 저녁 먹기
6. 7시: 아이 숙제를 도와줌



Background

- 아이가 2년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자고 졸라옴
- 계속 안된다 했지만 오랫동안 키우자고 하자 아이가 진심인 것 같아 & 둘째 계획이 없어서 어느정도 마음이 움직인 상태
- 하지만 완전히 키우기로 결정한 것은 아님. 키우더라도 알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일단 알아보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면 키우기로 함.
- 가족이 낮 시간에 모두 집을 비우므로 강아지를 돌볼 사람, 시간이 없음
 - 아이가 하교 후 와서 점심 때 챙겨주는 것으로 약속, 하지만 얼마 안가 부모(자신과 아내)가하게 될 것이라 생각 중



지식 상태

1. 강아지는 매일 산책을 해줘야 한다.
2. 강아지는 손이 많이 간다.
3. 한번 입양하면 쭉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4. 견종별 차이를 모른다.
5. 새끼 강아지는 원래 (펫샵 강아지처럼) 엄청 작은 줄 안다.
→ 얼마나 커지는지 잘 모른다.
6. 입양 경로는 펫샵 외에는 잘 모름. (길 가다 많이 보이는 게 펫샵이라)



Goals

1. 아이의 '강아지 키우자'는 의견을 위해서 알아보기.
2. 다 똑같아 보이는 펫샵 광고 사이에서 어떤 곳에서 데려와야 할지 알고 싶다.
4. 지금 상황이 정말 키울 수 있을지, 키우기에 괜찮은지 알고싶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키워도 되는지 알고 싶다.)



Group : Secondary user - 보호소 봉사자

- 이름: 김빛나
- 나이: 20
- 직업: 대학생
 - 갓 입학한 새내기. 버스 30분 거리의 통학러. 이번학기 교양 8학점+전공 6학점+금공강의 시간표로 살고 있다.
- 가족관계: 부모님, 2살 아래 남동생(동물털알레르기가 있음).



성격/가치관

- 다소 기분파.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텐션이 높아지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슬럼프+ 하루종일 집에 틀어박혀 쉬고 싶어한다. (대학입학+학기초 버프로 요즈음은 기분이 좋음)
-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에 따른 휴식/충전 시간이 필요하다.
- 본인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고3때 작성한 버킷리스트(제과제빵 배우기, 보호소 봉사활동, 친구들과 국내여행, 한 달에 책 2권 읽기 등...)에 충실한 삶을 (아직까지는) 살고 있다.



하루 일과

[평일(수업 가는 날)]

1. 수업 1시간 반 전에 기상, 밥은 따로 챙겨먹지 않고 등교.
2. 오전 수업이 끝나고 동기들과 학관에서 점심.
3. 수업이 끝나고 따로 약속이 없다면 시간이 비는 동기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

[공강/주말]

1. 학기 초라 동기들과 잡은 약속이 많다.
2. 아무 일정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쉬거나 동네 카페에 나가 책을 읽는다.
3. 주말 아침에는 보호소 봉사활동을 간다.



상황

- 고3 수험생활을 이겨내는 데 큰 기여를 한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은 시작한 지 얼마 안됐음.
- 중학생 시절 임시보호 경험이 있고 이 무렵부터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나 보호 기간 중 동생의 알레르기를 알게 되었다.
- 사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크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뉴스나 인터넷 글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나도 보호소 봉사활동을 해야지!’ 하는 목표를 막연하게 세웠었다.



상황

- 하지만 요즘들어 보호소에 못 보던 강아지들이 늘어나고, 입양이 취소되는 것을 보면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다.
- 동생이 알레르기가 있어 동물은 집에 반입금지. 훗날 취업을 해 자취를 하면 꼭 반려동물을 키우겠다는 다짐중.



Goal

- (본인이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으나) 강아지들을 최대한 많이 입양 보내는 것(에 보탬이 되는 것)
- 경제적 자립 후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



Group: Co-operator - 사설 보호소 운영자

- 이름: 김민재
- 나이: 47세
- 직업: 사설보호소 운영자



성격/가치관

- 사람 및 동물에 대해서 정이 많은 편.
: 업무에 대해서는 강박적이고 성실한 편.
자기 희생적인 면모가 없지 않음
- 윤리의식이 매우 높은 편
- 참을성이 좋은 편



하루 일과

- 기본적으로 보호소에서 숙식을 해결
- 아침 기상 후 보호 동물들의 상태를 확인
- 오전 타임부터 찾아오는 봉사자들에게 업무 할당(배식, 청소)
-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은 50마리에 달하는 보호 동물들의 관리/돌발 상황을 처리
- 일과 중 개별 개체의 예방 접종, 의료 문제를 체크



하루 일과

- 봉사자 귀가 후 시간 확인 증명서 등 행정 업무 처리
- 보호 동물 관련 게시글 카페 업로드
- 상기의 일들은 특정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루틴대로 처리한다기 보다는 그때 그때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정기적/불규칙적으로 처리
- 봉사자는 주말 봉사가 더 많아 평일에 더 부담이 큰 편



Background

- 유기동물 보호를 시작한 지 약 10년차
- 초기에는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다가 유기동물 관련 운동가로 완전히 전업하게 됨
- 만성적으로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드는 비용문제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음. 현재로서는 기부금과 시 지원금을 통해서 버티는 중
- 부족한 봉사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학생 동아리 봉사자, 일반인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해나가고 있으나 매번 간신히 그때그때를 넘기는 상황
- 온라인 매체에 익숙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그전까지 계속 사용해오던 네이버 카페를 사용하고 있으나 임보/입양/봉사 등의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느낌



Goals

- 유기동물 입양 및 보호자 모집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매체/방법을 찾고 싶다
-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물적/인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 업무 부담이 자신에게 많이 쓸려 있는데, 부담을 나눌 수 있거나, 또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싶다
- SNS의 사용법을 터득하고 싶다. / 본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SNS가 있었으면 좋겠다

Q & A